

전남 농어업 경쟁력 높이기 총력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곡성 멜론 최우수상 향토음식 알리기도 최선...소멸 위기 속 부가가치 향상 나서

우리나라 농어업의 핵심지인 전남의 농어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남도의 전방위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농어업 융복합 산업 육성, 향토음식 개발 등에 나서 인구를 유지하고, 소득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러한 농어업 분야 혁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1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남도가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에서는 전국에서 추천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 대해 엄격한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전문심사위원 발표심사를 통해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전남에선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주)이 최우수상, 해남고구마식품(주)이 장려상에 선정돼 농식품부장관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우수사례 선정 업체는 온·오프라인 홍보 및 다양한 판촉 지원 등을 받고 관련 사업 추진 시 우선 혜택이 주어진다.

곡성멜론은 지역 멜론농가와 상생 협력해 재배 표준 매뉴얼 제작, 공동선별 시스템 등을 확립해 연 950t의 고품질 멜론을 생산하고 있다. 설빙 등과 연계해 제품을 출시하는 등 대외 인지도 제고와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최근 전남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와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주관해 '전남 향토음식 발전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육회 비빔밥, 피문어죽, 갯물김치, 낙지 호통구이 등 전남만이 가진 향토음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발굴·계승을 위해 마련한 이번 포럼에는 관련 기업과 향토음식 전문가, 맛 칼럼니스트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배건용 조리사중앙회 이사, 신상엽 CJ

프레스웨이 상무, 이윤화 다이어리알 대표가 향토음식 발전과 가치 재조명에 대해 발제에 나서 전남의 독창적이며 창의적 향토음식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남도 음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식산업 활성화', '스토리텔링 발굴',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서구화된 음식문화, 퓨전 음식 발달 등으로 사라져가는 향토음식의 원형 보존, 우수성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선행돼야 하며, 이에 기반한 레시피 개발을 통해 세계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남도 음식 등 향토음식은 고유의 역사성과 민족성을 담은 케이-푸드의 근간"이라며 "향토음식이 전남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도록 체계적 발굴·보존 및 산업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규모 식품 종합 전시회인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전(코엑스 푸드위크)과 연계 개최된 만큼 향토음식 관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참석해 향토음식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감염병관리 우수기관...장관 표창

질병청 '감염병관리 콘퍼런스'

전남도가 정부의 감염병 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열린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조사감시,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위기대응 역량 강화 등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실제로 코로나19가 1~2급 감염병으로 유행하는 동안, 전남도는 노인 인구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24.3%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선

제적 방역으로 조사방틀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고,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매일 실시됐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재택치료 방안 개선, 병상 관리 체계 개선, 먹는 치료제 대상 확대,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등 현장의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하고 개선을 이끌었던 전남도의 리더십도 호평을 받았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신종감염병, 재출현 감염병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보험료 80~100% 지원...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15~87세 농업인 15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생긴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에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전체 사업비는 도비 14억원을 포함해 약 150억원 규모다.

가입 보험료는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총 10만1000원이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오는 15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사고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6000만~1억2000만원)과 장례비(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 상품은 개인 상품과 가족형 상품이 있으며 장해유족급여금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수령 가능하다.



전남도가 오는 15일까지 접수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을 도내 농업인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무안에서 양파를 재배하고 농업인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반복되는 노동으로 농업인이 각종 사고와 질병(농부병)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남도에에선 12만6000여 농업인이 안전 보

험에 가입해 5만4302건의 사고로 전체 보험료 159억5400만원보다 6% 많은 167억3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내년 조사료 공모사업 30억 확보

가공·유통시설·전문단지 5개소 선정

전남도가 2024년 농식품부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공모사업에서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2개소와 전문단지 3개소 총 5개소가 최종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전체 사업비 중 42%로 전국 최다 규모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조사료 가공시설은 영암축협, 조사료 유통센터는 장흥 고성영농법인, 조사료 전문단지는 나주 공산중포영농법인, 보성 선한영농법인, 신안 시골야재영농법인으로 5개소가 선정됐다. 대상자 선정은 농식품부에서 조사료 공급능력, 국내산 조사료 사용 비율, 유통체계 구축·

운영, 사업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를 외부전문가 서면심사 및 현지 실사 등 종합평가 결과를 거쳐 이뤄졌다.

조사료 가공시설(보완)은 시설건축비, 기계·장비·설비, 계근·방역·사무시설비 등에 개소당 9억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유통시설은 조사료 저장시설, 소포장 등 신규 설치비용 12억원을 지원 받는다.

조사료 전문단지는 조사료 재배면적 100ha 이상을 확보하고, 5년간 조사료 제조비, 기계장비, 종자 등 세부 사업별 국비 20% 추가 지원 및 액비, 입모중 파종비, 품질등급제 등 신규로 지원 받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전국 최다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식품바우처지원 공모사업 선정에서 전국 24개 시군 중 5곳이 포함됐다.

전남지역 선정지역은 곡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장성군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타당성, 사업수행역량 등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유형별(도시·도농·농촌) 고득점 지역을 선정했다.

총 35억원(국비 18억원·50%)이 투입되며, 해

당 지역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만2457가구에 6개월(3~8월)간 월 8만원(4인 가구 기준)의 농산물 구입권을 지원한다.

농식품바우처는 농식품부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 농식품을 구입하도록 전자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꿈 청춘 에세이 공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장학금의 목적과 그 소중함을 도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2023년 꿈 청춘 에세이 공모전을 진행한다.

'장학금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에세이를 공모한다. 현재까지 전남인재육성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장학금을 매개로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워온 성장 이야기나 위기를 극복한 사례 등을 수기 형태로 작성하

면 된다.

꿈 청춘 에세이 공모전은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6명 등 18개 작품을 선정하고 대상 7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등 총 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8월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intle.kr)에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